

‘파페포포’ 를 남기고 간 아이

장 소피아 수녀
성 바오로 복지병원

책 상 서랍을 열 때마다 새록새록 생각나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본인이 들으면 절대로 ‘아이’가 아니라고 하겠지만! 사실 그 아이는 나와 자기가 동갑쯤 되는 줄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전주 ‘성 바오로 복지병원’의 약국에서 일하고 있는 수녀입니다. 약국에 있으면서 가끔씩 시간이 날 때면 2층 병실에 올라가 입원하고 계신 환우분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소일하곤 합니다. 우리 병원의 환우들 대부분은 호스피스 대상자들이어서 그런 것인지, 나누게 되는 이야기들은 언제나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서로를 만나게 해 주는, 삶의 가장 진솔한 부분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나는 지금 그 많은 만남들 중에 있었던 잊지 못할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어느 때쯤 해서 한 아이가 우리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밝고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씩씩한 청년이었습니다. 늘 짧은 운동바지 차림으로 병원 주위를 혼자서 조깅하듯 뛰어다니곤 했는데 가끔씩 산책길에서 마주치곤 했습니다. 그냥 지나치기가 어색해서 “어때? 지낼 만 하나?” 하고 물어보면, 그 때마다 그 아이는 그저 짧고 간단하게 “예.”라고만 대답하고는 저 쪽으로 뛰어가 버렸습니다. 병실을 방문할 때면 찾아가 보고 싶었지만 웬지 피하는 것 같아 그 아이 방에만은 들어갈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우리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년 남자 환우 한 분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나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수녀님, 00가 수녀님 나이 얼마나 고 묻던데요. 동갑인 줄 알던데..” 그제서야 나는 “아하!” 하며 웃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학생 청년 아이는 나를 자신과 동갑내기인 어린 수녀로 생각하고는 부끄러워서 그렇게나 피해 다니던 참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날 오후에야 비로서 그 아이 방에 찾아 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들어가도 되니?” 하며 문을 뚫어 열고 들여다 보았더니, 그 아이 눈이 접시만큼 커져서는 말문이 막히는지 대답도 못하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은 것이었습니다. 난 그저 가만히 그 아이 침대 옆에 가서 앉았습니다. “00야, 그동안 자주 못 봐서 미안하다. 네가 어색해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넌 친구들도 참 많더구나. 심심찮게 지내기에 그냥 안 왔었어. 이제부터는 자주 올게. 그리고 긴장하지마. 나 너보다 15살이나 더 많은 늙은 누나뻘이니까!” 하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순간 그 아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와, 거짓말 같다. 난 정말 내 동갑쯤 되는 줄 알았어요!” 하며 환성을 질러댔습니다. 너무나 신기하다는 듯이... 그렇습니다. 난 자주 이런 오해를 받습니다. 하도 얼굴이 동안(童顏)인데다가 몸집도 작아서 다들 10년쯤 어리게 봅니다. 그래서 제 별명은 “아기 수녀님”입니다. 그렇게 첫 만남을 가진 우리는 그 아이가 상태가 좋을 때는 언제든지 그 아이 방에서 음악도 함께 듣고 만화책도 같이 보고 하



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 아이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여동생과 얽힌 이야기들, 자신의 느낌, 학교생활, 친구들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병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아이는 아주 독립심이 강하고 자존심도 강한 청년이었습니다.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면 아주 단호하게, 혼자 있고 싶으니 나가 달라고 당당하게 청하곤 했습니다. 특히 기침 때문에 몸이 심하게 흔들릴 때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난 그 아이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매우 활동적이고 똑똑하며 유능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고교시절엔 다른 빛깔로 급변해 버린 자신의 삶에 당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젊었습니다. 암이라는 병을 순순히 받아들이기에는

어느날, 그 다음 날 미사준비를 하기 위해 저녁 늦은 시간에 어두컴컴한 성당을 들렀을 때, 눈 앞에 펼쳐진 어떤 광경 때문에 난 차마 들어갈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대 앞에 어떤 부인이 꿇어 엎드려서 흐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 엄마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무런 혈연관계도 없는 내 마음이 애처로

움과 안타까움으로 이토록 저려온다면 엄마 마음은 어떨까 싶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나도 모르게 주책없이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쳐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터지도록 하느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아이를 살려주시면 안되겠느냐고.... 그러나 아무런 차도도 없이 무심하게 시간만 자꾸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맑은 어느 날 오전에도 여느 때처럼 그 아이 방에서 조용히 함께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불쑥 만화책 한 권을 내밀며 지금 당장 읽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파페포포 메모리즈』라는 제목이었는데, 그 아이는 그 책의 내용이 너무나 가슴에 와 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책을 읽는 동안 그 아이는 옆에서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남겨진 그 책의 느낌은 “슬프다”였습니다. 일상에서 누구나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단막으로 엮여져 있는 만화였는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오해 때문에 마음 아파야 하는 내용들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저며 왔습니다. 제대 앞에서 울고 있던 그 아이 엄마가 떠올랐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애야, 네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너를 사랑한다.” 하는 말이 실 새없이 떠올랐다가 목구멍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웬지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언젠가 나에게 이렇게 말 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제일 견디기 힘들어요. 특히 엄마가 말없이 울면서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는 정말 미칠 것만 같아요.” 잠깐 사이 생각에 깊이 잠겨 있던 나에게 그 애가 아무렇지도 않게 엮서 한뭉치를 던져 주자, 그제서야 화들짝 정신이 들어 그 엮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책에 달려 나온 엮서로 『파페포포』그림이 그려져 있었습

니다. 파페포포는 그 만화책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름입니다. 남자아이는 “파페”이고 여자아이는 “포
포”입니다. 그 아이는 그 엽서를 내가 가지면 좋겠
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여 동의하였고,
아직도 그 엽서뭉치는 내 책상서랍 속에 들어 있습
니다. 단 한번 그 중의 한 장으로 그 아이에게 엽서
를 썼습니다.

그 아이의 상태가 많이 악화되어 할 수 없이 우
리 병원을 떠나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옮겨갔을 때,
짐을 챙기러 우리 병원에 들른 그 아이의 아버지 편
에 부친 엽서입니다. 매우 짧은 내용의.... 그제 이
렇게만 썼었습니다. “OO야, 용기 잃지 말고 힘내.
기도할게.” 그것이 그 아이와 나 사이에 있었던 마

지막 의사소통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비록 그 아이가 이 세상에서 우
리와 함께 더 살게 해 달라는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그것은 영원한 하느님의 나라에서의
더 기쁜 우리들의 영원한 만남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임을 믿습니다. 그 아이 엄마도 그렇게 믿
고 있을 것이고 그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님을 나
는 잘 압니다. 책상서랍을 열어 엽서를 볼 때면
그 아이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합니
다. 아름답고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해
달라고...

단풍잎 사랑

- 이정하 -

언젠가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안에 난 내 모든 것을 풀어 놓았습니다
가을날 단풍잎에게 가서 물어 보십시오
낙엽이 되어 떨어질 걸 뻔히 알면서도
왜 그 순간까지 자기 몸을 남김없이 태우는지